

인

6월 5일
54000

2001. 5. 5

받는 즐거움: 시간만 잘 지키면 완벽할(?) 5기 연대회의의 여러분

주는 즐거움: 연대 온

국제적 활동 계획 이후에 나올 듯.
미국인 수혜자이다. 수혜자라는 의견.
정신과사범교시 나옴 수혜자도

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5기 연대회의

1. 보고안건

-고대 여위

KBS 공대위 (5/3): 11명 1000여명, 문자방송, 모금 187,800, 유인물 배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. PC로 함.

-동대 총여

총여 대동계 마지막 주 (5/28 - 6/1): 민선기 장면, 학생 사진. 함송이 모집중

-서울신대 총여

등특 단위 모자란 재제비. 대동계 기획. 여학생자치회 재발기.
학생가안 (성대 가안과 같음) 신교원강연 명목 (5/3),

-성대 총여

여성제 (15-11): 대자녀자, 민선기, 신교원, 전정훈, 개혁신학.
사이버성폭력: 가해자 사과할 수 없다. 사이버성 폭력(동여아) 강력 대응을 것이냐는 (반응)
가해자 사과를 통한 나았음! 너무 강박함. → 유전자 식수에 라면반응이라는 이야기. 재교육거부.
반사회적 사관문 내기로.

-연대 총여

학칙: 제정여부도 안수 없음.
백연문.
하주에 떼지.

-이대 여위

100명씩 시명 함과 있음. 미스코리아 사관 Sr. - 여기비도 통령 고려정.

-이대 총학

학칙보류, 학주위: 5/8 교육위원회 교수 보충하기로 했으나 실행하고 있음. 제정도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. 100명씩. 성폭력, 여성노동.
집중 사진, 퍼포먼스, 최후라 교수 양면 반만. -학교측 반응 없음. 신입세미나중, 학생세미나 할 듯.

2. 논의안건

-May Day 평가

성폭력자극 해시 상황 파악이 안되고 성폭이 안됐음. 사건에 학생들 계획하는 것이 더 나았다.
퍼포먼스를 할아도 못한 인상. 몸대주기 사관수 있었따. 남여주기 사관하는 경험하는 것이 좋다.
행진에 대한 함의가 많았다. 사건계획이 많이 모자랐다.

-세미나

간사: 성폭력 - 안박.
5/19, 26, 6/2, 6/6.

-기타

학생활동 내주.

간사제안.
현장활동 내주 물어보기.

회의시간 지키기

다음 회의

토시 세대.

강주부터
토시

미스코리아

"안티미스" 예능.

집중회의에 이야기해 보고 듣기기.